**주제: 기적논증**

분반: 03 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기적을 통해 기독교 종교의 정당성을 확증할 수 있을까? 기적이 과연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면 기독교의 진정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기적은 자연법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인격을 가진 초자연적인 신의 의지적 행위로 정의한다고 한다. 달과의 인력으로 생기는 바닷물의 갈라짐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다른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인 것이다.

기적에 반대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의 의견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발생한 기적들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예외적인 현상에 지니며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기적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반증하였고 이에 무신론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기적이 있기에 이는 자연 세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상적 보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또한 과학주의에 빠진 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전에 기적의 발생 가능성을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에 이는 과학적 영역의 문제가 아닌 세계관의 차원에서 다시 고려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기독교 기적의 타당성을 위해 각 종교를 4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를 믿는지, 기적에 대한 긍정적 입장인지, 기적 사건을 담은 문헌이 오랜 시간 경화 후에 나온 문헌인지, 종교에서 기적을 없애면 그 가르침이 유지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 경우 생자필멸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함께 초자연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석가모니 또한 자신을 영원한 신적 존재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불교에서 ‘신’은 비인격적인 실재이므로 기적의 정의인 “초자연적인 인격적 존재의 행위”와 성립할 수 없다. 불교에는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업보’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수용한다면 기적은 논리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의 기적에 대한 기록은 후대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슬람의 경우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기적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자신은 오직 도덕적 전달자일 뿐 기적을 행하는 것은 유일 신 알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기적을 행했다고 말을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이 기적이 기록된 책은 ‘하디스’인데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시기와 책이 간행된 시기 사이에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허구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다.

수업 토론 시간에서 학우분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럼 굿판에서 벌어지는 악령을 쫓고 또 신부들의 악령을 없애는 그런 주술들은 기적이 아닌가? 이 세상에는 악이 분명 존재한다. 그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세력에 반대하는 이 창조된 세계의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와 표적을 흉내 낼 뿐 그 이상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많은 이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기록 역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세대에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 기적과 그것을 모방하는 거짓 기적을 구별해야 할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 내기논증**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 ‘파스칼’의 팡세 라는 책을 통해 무신론과 종교 무관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본다. 파스칼은 아버지가 사고로 부상당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장세니스트의 영향을 받아 회심을 하게 된다. 그때 파스칼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신으로부터 버림받음 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31세에 은혜체험을 받으면서 기독교 변증서인 ‘팡세’를 구상하게 된다. 그 ‘팡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류학적 논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을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라고 비유하신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간은 갈대처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성격적 상징물이다. 이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라고 묘사한다. 인간은 유한하며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에 있다고 표현한다. 그 비참함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감각은 그릇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상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이는 간략히 말해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것으로 인해 무너지며 헛된 것을 추구하므로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존재임을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내기 논증을 살펴보자. 이는 엄밀한 철학적 논증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은 이후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제시해 나간다. 이는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신을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알려준다. 모든 인간을 태어남과 동시에 이 내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다면 신의 존재함과 영원성을 믿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끌 것이다. 파스칼은 이 ‘내기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원한 세계의 존재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타산의 원리’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를 통해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 신을 믿는 것에 대한 고민 또한 필연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기도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하늘의 상고 이득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이익을 따지는 것과는 다른 원리를 지닌다. 그러기에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스칼은 인간이 신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마음’이라고 주장한다. 이 마음에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조화되며 또한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타산의 원리’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성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영원 불멸한 세계의 존재함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바라는 소망은 세상적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 부활논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인가, 조작된 허구인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이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한다. 성경 속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하나님이 부활시켜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를 반대하는 자들의 철학적 전제를 분석하면서 오류를 발견하고자 한다.

우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 라는 인간의 상식의 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활을 부인한다.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눈으로 본 경험이 없기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상식상 죽은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는 개연성에 기초하여 그 근거를 선험적으로 기적에 반대되는 증거만 모으고 있기에 반증의 증거로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부활은 종교적 상징일 뿐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적 의미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문화권에 지배적인 사상이 존재했다면 그 사상을 실현시킨 것이 종교적 상징으로 조작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유대, 헬라 사상에는 육체의 부활하는 사상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없는 사상을 만들어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다음으로 성경 분석을 통해 부활에 대한 관점을 다시 정립해보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 부활이라는 사실만 반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채찍과 납덩이로 고난을 당하시고도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믿어야 함에 타당하다. 그 고난과 피를 흘리신 사실을 부인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증거가 되는 것들을 부인하는 관점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닌 빈 무덤을 찾아가서 혼동한 것이다.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과연 제자들이 그 사건 이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이 시신을 절도했기에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조작설과 환각설이 있다.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여성들의 법적 증언은 효력이 없었고, 성경 속 예수님 부활 사건의 최초 목격자는 여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봤다고 목격하는 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데, 이는 성경 속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통해 환각 상태에 모두가 빠져 있다면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가 부인되어야 하기에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적 예수님의 부활 증거로 많은 이들의 변화한 사실이 있다.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배반하고 도망간 가록 유다, 마가, 안드레, 빌립, 도마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 야고보는 어떠한 믿음도 가지지 않았다가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마찬가지로 순교한다. 또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던 당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두 차례 설교를 통해 약 3만 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변화와 기독교의 발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설이 아닌 실존적 역사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지옥논쟁**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인가?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이다. 사랑은 커녕 비인간적이며 이기적인 종교이다. 지옥에 대해 많이들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생각이다. 하지만 지옥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필연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옥은 그럼 실재하는 것인지 성경 속 말씀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예수님은 지옥이 실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애매한 표현을 쓰신 적이 없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옥 교리를 설명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히브리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며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다. 마태복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을 형벌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 마귀를 처벌하기 위함도 있다. 마태복음 25:41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현대 사회에서의 처벌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얻는 쾌락보다 고통이 더 크도록 하기 위해,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올바른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정의를 위해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다. 또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임을 안다면 지옥을 통한 죄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 의지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고 그 의지를 주심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로 영원한 추방을 시키는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도록 그 분의 영원하신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지옥 중 어느 곳에 갈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인격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실재한 것인지에 대해 변증을 해보자. 비유적 표현임을 생각하며 접근을 하면 지옥불은 형벌을 상징하며 그곳에서 겪게 될 고통을 의미한다. ‘지옥의 구더기’는 인간성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실제적인 비참함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의 잔해를 표현함이다. 또한 지옥에 간 사람이 이를 간다고 표현한 부분은 지옥에서 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악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미지들은 상징을 넘어서 고통도 실재하며 실재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범죄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는 죄의 구원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에 영원한 지옥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어서는 안되는 인간의 선택 조차 없어진 자유의지가 없어진 곳이다. 또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하시지 않는다는 마음과 사랑을 알며 나약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존재논증 – 갈망 논증]**

두 가지 갈망, 이 땅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초월적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CS 루이스는 인간은 초월적 성취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그 갈망은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갈망하는 인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말한 것을 살펴보자.

플라톤은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새는 물병, 깨진 항아리와 같다고 묘사한다. 잠언을 바라보아도 인간은 거머리와 같다고 표현을 한다. (만족함이 없다고 말한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만족함을 모르는 갈망의 존재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경우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영혼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공통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인간의 갈망은 채워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이다. 시냇물을 마시는 사슴의 비유를 보면 사슴이 사냥꾼의 위협과 같은 육체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물을 마시듯 신에 대한 갈망을 죽음을 넘어서는 갈망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의 초월적인 존재(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 만이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빅토르 마리 위고에 의하면 "삶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다"라는 말을 한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상호적 공동체적 믿음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초월적 존재에게 소원을 비듯 염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우리의 갈망을 채워준다는 점이 인간의 갈망을 채워주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것이다. 또한 이 관계를 얻고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실존성은 소유 및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루이스의 말을 빌려 믿음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는 내가 태양을 믿는 것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과 같다.” 라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함에 대한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은 부의 증가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먹고 살 만한 돈과 능력이 되니 영적이 갈망이 줄어든 것이다.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세상적으로 생긴 갈망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갈망일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영원함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며 인격적 만남을 통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기독교에서 인간의 갈망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신정론]**

고통과 고난이 존재한다고 선한 존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다. 하지만 여러 세계관이 주장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악은 존재하지만 신은 존재하시 않는다는 무신론, 신은 존재하지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범신론, 신과 악 모두 존재한다고 보는 유신론이 존재한다. 여기서 유신론을 제외한 세계관의 악에 대한 생각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이 실재할 수 있는 가이다. 하지만 초반에 말했듯 악이 존재한다고 선의 무존재성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를 반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근거인 것이다. 그들의 결론 이렇다. 악을 없애고 싶지만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또는 악을 없앨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아 없애지 않음은 그 신은 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지 기독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악이 생성되었다는 입장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며 완전한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들 중 일부분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일부가 자유롭게 악을 선택한 결과가 된 것이다. 악 또한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닌 자유의지가 있는 피조물인 인간의 실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의 결핍이 악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로써 창조주와 교제가 가능한 피조물의 인격성이라고 보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원죄의 발생은 인간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으며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 재난과 전쟁을 통해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증거를 살펴보자. 우선 자연 재난은 아무 죄 없는(이유 없이 죽음) 사람들의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을 통해 사람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에 맞지 않은 의미라는 것이다. 우선 성경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원인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계에 생기게 되며 자연의 저주라고 보며 완성하실 모습,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쟁을 살펴보면 어떤 전쟁은 개인이나 혹은 단체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전쟁을 허락하시며 이때도 무차별적인 전쟁이 아닌 단계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쟁임을 알 수 있고 공의의 하나님을 실현시킨다는 점이 그 주장이다. 또한 전쟁을 통한 회개를 하게 만드심에 전쟁을 사랑 없음의 이유로만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악이 들어오게 된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 까. 우선 모든 악은 자유의지에 의해 발생하기에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사람이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지만 사람에게 범죄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분명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믿을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저버린 인간을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표현할 수 있는 허락하심이 될 것이다.

**[신존재논증 – 우주론적 논증 & 칼람논증]**

우주론적 논증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만물을 발생하고 있게 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이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논증 방식이 존재한다. 운동에 의한 논증, 우리는 움직이는 사물을 볼 때 그 물체가 자의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움직이는 물체는 다른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부동의 동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그 존재가 신이라고 주장한다. 원인에 의한 논증, 어떤 사물이 자체가 원인이 되려면 자신보다 먼저 능동적인 존재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과 법칙으로써의 제일 원인이 필요로 하는데 이 존재가 ‘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인간을 우연적인 존재 ‘신’을 필연적인 존재로 보며, 자연의 상대적 가치의 비교 기준으로 절대적 가치가 필연적이며 이를 ‘신’으로 본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이다.

두 번째로 라이프니츠 논증을 살펴보자. 모든 존재하는 것의 존재 이유는 필연적이거나 외부의 원인 중 하나인데 만일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신’일 것이고 그러기에 우주는 존재한다는 논증이다. 사실 이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결론을 피할 수 없는 논증이며 전제의 참 거짓을 통해 무엇이 더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전제에 의하면 신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이다.

칼람 논증을 살펴보면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며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됐기에 우주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생성 원인을 ‘하나님’으로 보는 논증 방법이다.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든지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원인없이 생기는 것은 과학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으며 양자물리학의 반증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우주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전제이다. 우주의 과거에는 무한수의 사건들이 있을 수 없으며(영원의 개념이 없다는 뜻)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밝혔듯 빅뱅에 의해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이론이다. 세 번째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우주를 창조해야 하기에 적어도 우주 외부에 있는 존재일 것이고,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원인이기에 이를 초월하는 존재여야 함을 주장한다. 즉, 우주의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존재이며 우주 밖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존재는 언제나 우주론에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전제는 논증을 쉽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는 작은 전제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의 창조 관점으로 넓게 옮겨가 신의 존재에 대해 논증하는 이 방식이 기독교 변증에 사용되는 가장 논리적이자 기초적인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독교의 원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처럼 과학의 이론으로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과 ‘시작에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조차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정론]**

악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세 가지 견해

**1. 어거스틴: 인간의 자유의지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다 / 하나님은 완전한 피조물을 창조했다 / 하나님은 일부의 피조물에게 자유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 그런 피조물의 일부는 자유롭게 악을 선택했다 / 하나의 완전한 피조물이 악을 유발한 원인이 된다.

악의 실체론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결방식은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 했다. 2. 악은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의 결핍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직접 창조하지 않았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완전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의 결여를 가진다)

**2. 이레니우스: 인격형성의 신정론**

신의 형상과 신의 닮음을 구분했다. 형상 = 창조주와 교제가능한 지적 피조물의 인간적 존재의 본성이고 닮음 =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에 완성될 인격적 존재의 본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원죄는 인간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발전을 위한 과정을 본다는 것이 의견인 것이다.

**3. 과정신학적 견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 데이빗 그리핀의 주장)**

1)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2)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3) 신은 우주의 법칙에 종속된다 (초월적 신의 존재를 부인함)

**- 전쟁에 대한 성경적 관점**

1. 어떤 전쟁은 개인과 국가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궁극적인 요인은 “정욕과 욕심” “정복 전쟁이다”

2. 하나님은 역사에서 어떤 전쟁을 허용하시는 경우이다. 첫 번째로 개인, 국가의 죄의 결과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를 들어 가나안의 죄. 이스라엘의 죄., 앗수르의 죄, 바벨론의 죄가 있다. 두 번째로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 타락한 본성은 평화시기엔 탐욕, 전쟁에선 사약함이 들어남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전쟁 이전, 전쟁 중, 전쟁 후에 대한 교훈이며 궁극적인 목적(회개, 돌이킴, 공의)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 자연재난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1. 아담의 타락으로 자연의 저주가 시작되었고 2. 타락한 세계 안에 죄없는 사람은 없다. 3. 자연 재난은 아담의 타락이후 피조계에 생긴 것이고 4. 자연재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는 점이다.

**- 신정론 강의의 근본적인 목적**

악인이 형통해도, 악이 득세를 해도,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신앙체험 논증]**

**- 변혁적 체험의 인관관계에 의한 논증**

1) 어떤 변화에는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있다. 2)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 변화된 삶을 산다. 3) 그 변화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논증**

1) 크리스천의 신앙체험은 다양하다(중생, 신유, 성화, 기도응답 등) 2) 이런 다양한 체험은 공통된 하나의 요소를 갖는다. 3) 크리스천의 신앙체험은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객관적이며 역사적 사실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거룩한 존재에 대한 신령한 체험 논증(직접 인지)**

1) 직접 인지 논증은 사람들이 초월적인, 거룩한 인격의 신의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 2) 감각인지 행위는 대개 진정한 경험의 근거가 된다. 3) 누미노제 경험(신의 임재경험) - 시내산에서 모세의 경험, 파스칼의 경험, 바울의 경험... 4) 감각행위와 누미노스 인지행위는 유비적 관계이다. 5) 결론: 기독교의 전체 진리를 신령한 체험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렬한 체험논증은 강력하며 개인에게 실존적 여파를 가져온다.

**- 기독교의 변혁적 체험의 목적(거룩함)**

1) 황홀경의 경험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일부 종교는 황홀경을 추구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독교는 감정상의 황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네 종류의 땅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 일부 종교는 영적 황홀경을 약속하지만,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고난과 기쁨 둘을 이야기 한다. 이 땅에서 고통, 역경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3) 성령의 임재는 은사와 열매로 나타난다.

**[성경의 권위 & 예언 성취 논증]**

**- 성령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논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 성령의 역사가 늘 수반되기 때문. /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수반되지 않으면 설득되어 믿을 수 없다(칼빈)”

**- 성령의 내적인 증거**

: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식하지 못함,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필요함, 성경의 권위의 확실성은 성령의 내적인 설득으로 생심,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은 그 때 재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1)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1817개이다 2) 성경 본분의 27%는 예언과 관련된 것이다 3) 하나님이 주신 예연의 특징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명이며 일번적, 과학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며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드문 사건이라는 점이다

**- 성경의 외적 권위**

: 성경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전달되어 왔다. / 성경은 무신론자, 핍박자, 적그리스도들, 고등비평, 공산주의자에 의해 공격을 받았으나 온전히 보전되어 왔다.

**- 성경신뢰에 대한 문헌학적 고려**

1) 엄청난 수의 필사본들 2) 신중하고 엄격한 필사의 방법과 규칙들 3) 고고학적 자료들 4) 성경 이외의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들

**[신존재논증 - 존재&본체론적 논증(선험적 논증)]**

**- 우주론적 논증**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어야 한다. 만물을 발생하고 있게 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논증방식

1) 아퀴나스의 5가지 방식

운동에 의한 증명(최초의 원동자로서의 신) / 원인에 의한 증명(최초의 작용인으로서의 신) / 우연적 존재(인간과 자연)와 필연적 존재(신) / 사물의 완전성 단계: 최고선, 최고 진리(모든 완전성의 원인인 하나의 최고존재로서의 신) / 만물의 질서와 조화: 만물의 합목적성을 갖게 하는 하나의 지적인 존재로서의 신

2) 라이프니츠 논증

- 라이프니츠의 충족이유율

1) 모든 우연적 개체는 왜 그것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존재한다. 2)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의 존재를 위한 이유가 있으며, 다른 조재들의 인과적 효과성 혹은 존재하는 것 고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한 것이다. 3) 완전한 의미에서의 충분한 이유: 어떤 특정한 존재의 존재를 위한 충분한 설명 -> 이 충분한 설명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설명이여서 그 설명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 버트런트 레셀의 반증 :

1) 만일 모든 것이 원인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원인을 가져야 한다. 2) 만일 원인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세계도 원인없이 존재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기독교의 우주론적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신존재논증 - 칼람 논증(후험적 논증)]**

**- 현대의 우주론적 논증**

실제적 무한이 불가능하다면, 사건의 연속은 유한하다.

1)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3)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 대전제가 존재하며 이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1) 아무 원인없이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 원인없이 생기는 것은 과학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다. 2) 양자물리학의 반증은 설득력이 없다. 양자는 양자진공과 에너지 바다가 그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다”는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두 번째, 우주는 시작이 있다. 1) 수학적 추론으로 지지이며, 우주의 과거에는 무한 수의 사건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 2) 과학적 추론으로 지지이며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중력이론”으로 우주는 정지사태가 아니라 폭발된 것임을 주장한다.

**-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적용**

1) 만일 우주가 영원하고 에너지 양이 유한하다면, 지금 열죽음에 도달했을 것이다. 2) 우주는 지금 열죽음에 도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5) 그러므로 우주는 첫 번째 원인에 의해 창조되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아퀴나스: 신존재는 언제나 우주론에서 시작한다.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전재는 논증을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칼람논증: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1) 다수의 창조자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2) 우주의 원인은 초월적, 인격적 창조주를 전재한다.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 / 우주의 원인은 시공을 초월이므로 그 원인은 비물리적이다.)

**[신존재논증 - 미세조정 논증(후험적 논증)]**

세상은 왜 사람이 살 만한 조건으로 되어 있나? -> 인간중심원리

“우주와 관련된 몇몇 기본 상수의 값과 우주의 몇몇 초기 상태의 특지잉 특정 종류의 우주, 곧 지적 생명체의 출현이 간으한 우주가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견해

“미세조정”은 우주의 다양한 상수들이 긴밀하게 조정되어 인간의 생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주 상수는 최소 10의 53승분의 1)

현재의 미세조정된 우주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답변은 우연, 자연법칙, 우연+자연법칙의 결함, 창조주의 설계인데 앞의 3가지로는 특정성, 정보,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세조정은 설계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다)

육지와 바다의 비율 = =3:7 (만약 5:5 라면 육지는 사막으로 변함)

대기 구성: 이산화탄소 비율 - 광합성 -> 지구 온도 조절

지구의 직경이 10% 커지면 -> 지구 표면적 20%증가, 지구질량 30%증가, 물의 증발이 감소되어 대기 순환구조 붕괴, 사막화

**[신존재논증 - 지적설계 논증(후험적 논증)]**

1. 우주는 목적론적이다.

우주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도록 만들어졌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2. 빅뱅의 첫 순간

스티분 호킹박사 “빅뱅이 있은 후 1초 후에 팽창율이 10의 17승 분의 1만큼 작았다면 우주는 현재의 크기가 되기 전에 재 붕괴, 반대로 1초당 팽창율의 10의 17승분의 1보다 컸다면 우주는 너무 팽창에서 우주는 지금 텅 비었을 것”

4. 이런 정교함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논증 방식

5. 생화학 이론으로서의 지적 설계

- 박테리아 편모 / 지혈작용 / 박테리아 변이 과정 / 눈의 구조

**[신존재논증 - 목적론적 논증]**

자연의 질서와 목적을 통한 논증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신존재논증 - 도덕 논증(후험적 논증)]**

CS 루이스 “옳고 그름”은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 /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 자연법과는 다르다 /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도덕판단의 근거가 된다 /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미적 직관을 통해서 알려진다

- 도덕 논증을 위한 3단 논법

1) 만약 신이 없다면, 객관적 도덕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객관적인 도덕가치들이 존재한다. 3)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신존재논증 - 갈망 논증(신을 향한 귀소본능)]**

1) 모든 자연스런 갈망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 2) 사람은 초월적 성취를 향한 갈망을 갖고 있다. 3) 초월적 갈망은 초월적 신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

- 인격적 관계의 갈망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 / 빅토르 마리 위고 “삶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다는 확신” / 파스칼 “진정한 종교는 신을 사랑하게 만든다” /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적 - 공동체적 믿음이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은 내가 태양을 믿는 것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내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 갈망논증은 엄밀한 신존재 증명은 아니지만 인간이해에 대한 실존적 깊이가 있다. (주관적 체험의 호소)